

DURE

BANG

ANNUAL REPORT

2021년 두레방 활동보고서



목 차

인사말	3
-----	---

I. 기지촌여성

1. 2021 기지촌여성	5
2. 기지촌여성 상담과 지원	6
3. 기지촌여성 국가배상 청구소송	7
4. 기지촌여성 생애사 전시	8
5. 기지촌여성 프로그램	9

II. 이주여성

1. 2021 이주여성	11
2. 상담과 지원(상담소&쉼터)	12
3. 이주여성 프로그램(상담소&쉼터)	13
4.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쉼터)	14

III. 실적&통계

1. 두레방상담소 실적통계	16
2. 두레방쉼터 실적통계	18

IV. 주요활동 및 연대활동

1.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개소	21
2. 주요활동 및 연대활동	22

V. 결산&후원

1. 2021 두레방상담소	27
2. 2021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28
3. 2021 두레방쉼터	29
4. 후원자 명단(상담소&쉼터)	31



2021년은 두레방이 활동해 온 지 3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지촌 및 그밖의 성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피해와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두레방상담소>와 국내 유일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인 <두레방쉼터>는, 2021년도 따로 또 같이 협력하며 성착취로 침해받은 인권을 되찾고 자존감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2021년 두레방이 평택시로부터 수탁하여 성매매집결지 피해자들을 위한 성매매피해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성매매 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문제해결과 탈성매매 지원을 이어나간 해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2021년에도 지속되었고, 두레방 활동에도 많은 부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두레방은 계속해서 성착취피해 현장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각계 기관 및 단체와의 연대로 차별에 맞서 소리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레방을 기억하며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체를 함께 일궈 온 많은 공동체원과 후원자분들이 있었기에 2021년 활동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두레방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지촌여성

I

1. 2021 기지촌여성
2. 기지촌여성 상담과 지원
3. 기지촌여성 국가배상 청구소송
4. 기지촌여성 생애사 전시
5. 기지촌여성 프로그램



1. 2021 기지촌여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었던 2021년, 팬데믹 이전 두레방을 사랑방 삼아 방문하던 것이 일상이었던 고령의 기지촌여성들에게는 힘겨운 시간이었다. 그런 중 기지촌여성들이 고령의 나이대로 접어들어 지병이 있거나 돌아가시는 상황이 2021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한편, <경기도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0년)>가 제정된 지 거의 2년이 지나도록 지원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2021년 기지촌여성 지원위원회가 모여 7차례 회의를 열었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해 8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12월에 결과 통보를 받았다. 관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직접지원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또한 피해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무원과 위원들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는 만큼 정확한 피해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인데, 여성정책국은 경기도에 기지촌여성지원 특별기획팀 구성을 요청하였으나 실질적 운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말에는 도민의 기지촌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목적으로 ‘경기도 기지촌여성(성매매피해자) 인권증진 주민인식개선사업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두레방은 <의정부 ‘기지촌여성’ 생애사 영상기록 및 전시>를 진행하였다. 2021년 주요활동으로 또 한 가지를 꼽자면 기지촌 빼벌마을의 성병검진소였던 현재 두레방상담소 건물을 보존하고, 기지촌여성사를 담을 문화유산의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구상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내담자들과 간담회도 열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관련하여 2021년 5월 대법원 정문에서 <기지촌여성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레방은 계속해서 기지촌여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법원 최종 판결과 기지촌여성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기지촌여성 상담과 지원



2021년 두레방상담소는 전년도와 같이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상담이 주를 이뤘다. 의료지원·동행 등 대면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에서 내담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상담과 심리지지에 주력하였다. 특히 기지촌여성들의 경우 노령화로 인해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2021년 가을, 오랜 세월 기지촌에 거주하시며 두레방공동체 일원이었던 언니 한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생의 끈을 잡고 계시다 돌아가셨고, 두레방은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하며 고통과 슬픔을 나눴다. 한편, 만성 폐 질환으로 평소 호흡곤란을 앓던 기지촌여성 한 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었는데, 2021년 상반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면회가 대부분 금지되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병동에서 홀로 보내셔야 했던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두레방은 활동가들이 돌아가며 영상통화 서비스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내담자를 만나며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밖에 “코로나로 집에만 있어 입에 곰팡이가 필 것 같다”며 고립감을 호소하시는 분, 집에만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면역력 저하와 함께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신 분 등 외부 활동 제한으로 스트레스와 피로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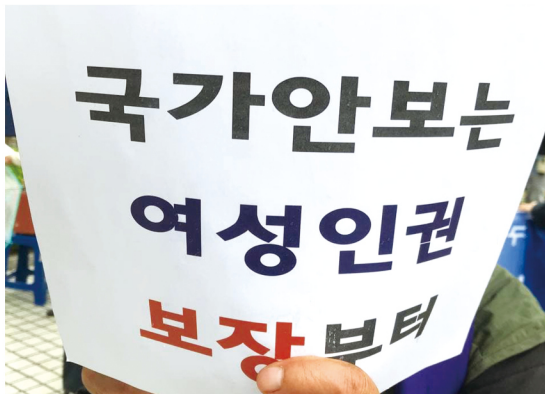


3. 기지촌여성 국가배상 청구소송

- 대법원판결 촉구 기자회견



2014년 최초로 122명의 기지촌여성들이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후 7년이 흐른 2021년 5월 17일,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 원고인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경기여성연대, 기지촌 문제 연구자들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대법원 앞에서 개최하였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안김정애 사회, 상임대표 우순덕 인사말, 원고인 김**과 연구자 이나영, 소송대리인 하주희, 연대단체 오영미의 발언과 두레방 김은진 원장의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두레방 포함 총 22명의 참여자들이 모였다. 특히 기지촌 미군위안부 생존자들과 함께 “대법원의 긍정적 판결은 국가 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한국 여성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며 “원고들이 태어난 나라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닌堂堂한 한 여성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판결해달라”고 다시 뭉쳐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지난 2018년 고등법원은 국가의 성매매 정당화와 조직·폭력적 성병 관리에 대한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기지촌여성들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으며, 2014년 당시 소송에 참여한 122명의 여성 중 10여 분이 돌아가셨다. 더 늦기 전에, 대법원의 조속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두레방은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4. 기지촌여성 생애사 전시

-경기도 성매매피해자(기지촌여성) 인권증진
주민인식 개선사업 프로젝트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0년)] 재정 후, 경기도에서는 기지촌여성 인권증진 주민인식 개선사업을 공모하였다. 이에 두레방은 경기도 기지촌여성의 존재와 희생을 상기하는 목적으로 의정부 내 기지촌에서 인생 대부분을 보낸 여성 3인의 생애사에 대한 영상기록과 전시 행사를 기획하고 열었다. 두레방 주최, 이고운 작가, 전윤지 기획으로 구성된 《나 여기 지금》 전시가 2021년 12월 29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동두천 무농도예갤러리에서 열렸다. 다큐멘터리 영화 <호스트네이션>의 이고운 감독이 두레방 내담자 세 명의 생애사를 인터뷰하여 담은 영상기록으로 구성된 해당 전시는 총 91명이 관람하였다. 이를 통해 미군기지 개발과 함께 한국인들의 기억 너머로 사라지고 있는 기지촌여성들의 존재를 알리고 관객들에게는 기지촌여성의 개인사를 근접하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기지촌여성의 삶을 좀 더 이해 가능한 친밀한 시선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이 같은 생애사 영상기록 프로젝트는 앞으로 기지촌여성의 인권증진과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연구와 지원사업을 위한 기록화 자료로서 중요한 기록물이 될 것이다.



5. 기지촌여성 프로그램



계속된 팬데믹 상황으로 예년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 인원 제한으로 공동식사와 여럿이 모이는 공예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 2021년 한 해 총 21회의 반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으로 음식을 배달하며 내담자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기적 반찬 배달뿐 아니라 명절이나 생일, 기념일에 음식과 선물을 나눴는데, 이 같은 활동은 코로나 블루 상황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서 두레방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고령의 기지촌여성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활기를 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21년 하반기 두 번의 가을소풍과 상담소 인근 공간을 대여해 운영한 상설 텃밭프로그램 진행으로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잠시나마 팬데믹을 잊을 수 있었다. 내담자들과 이이삼삼 소그룹으로 천연수세미, 된장, 한방차 만들기 프로그램도 진행했는데, 특히 천연수세미는 두레방 후원자들을 위한 연말 감사선물로 사용되었다. 이밖에 소규모로 공동식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두레방 선주민여성 프로그램 중 일부는 Columbus Foundation: MGF Touch Foundation Fund at Give2Asia의 지원으로 운영되었다.)



이주여성

II

1. 2021 이주여성
2. 이주여성 상담과 지원(상담소&쉼터)
3. 이주여성 프로그램(상담소&쉼터)
4.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쉼터)



1. 2021 이주여성



팬데믹의 첫해는 두레방상담소(아래, 상담소) 내담자들의 국내 이주 사례가 많았다면 두 번째 해인 2021년은 내담자들이 임시로나마 각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한해였다. 이에 따라 상담소는, 내담자들이 새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충 및 경제적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염려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갔다. 또한 코로나19로 휴업한 기지촌 업소들, '시크릿 오픈' 또는 업태를 변경해서 영업을 지속한 업소들, 그밖에 미등록 이주여성을 고용하는 산업들을 지켜보면서 상황 파악에 주력했다. 두레방쉼터(아래, 쉼터)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입소자의 증가율은 둔감해졌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체류 이용자의 지원은 활발해졌다. 한편 3월 경기 북부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연말엔 평택 기지촌까지 퍼져 평택 내 거주 중이던 상담소 내담자들을 시작으로 확진 사례가 속출했다. 대한민국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타국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험이 처음이었던 내담자들은, 당시 느꼈던 걱정과 불안, 혼란 속에서 두레방으로 연락하였다. 상담소 역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주여성 내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 걱정도 많았고 원활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 쉼터는 내부 프로그램 활성화에 집중했고 자활참여자지원사업 중 인턴십 프로그램 연계가 어느 해보다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보건소 및 병원의 백신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생필품 지원 등을 꾸준히 이어갔다.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이 범유행하면서 상담소는 두레방데이 등 대규모 행사를 연기했고 비대면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쉼터는 입소자들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 파티 등을 진행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내담자도 활동가도, 모두 한데 모여서 프로그램도 하고 함께 잔치할 수 있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2. 이주여성 상담과 지원

-상담소&쉼터



2021년 상담소는 코로나19 관련한 상담과 지원이 많았다. 연초부터 코로나 검사와 출입국 단속 간의 연관성을 모니터링하면서 ‘단속·출국 조치 없이’ 검사 가능한 사실을 미등록 체류 내담자들에게 알리고 안심시켰다. 내담자들이 차별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하반기 급격히 증가한 확진 내담자들을 위해 정보제공과 심리지지, 역학조사, 공공의료 기관과의 소통, 생활지원비 신청 등을 함께 하였다. 의료지원은 전반적으로 2021년 역시 산부인과 지원이 가장 많았고, 내과와 치과 순이었다. 법률지원으로는 팬데믹 중 업소를 이탈한 내담자들에게 체류자격 관련 상담을 했고, 2019~2020년부터 시작된 법률-성매매 강요와 알선, 노동착취, 성폭력 피해-사례들을 계속 지원하였다. 특히 두레방(상담소&쉼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아시아의친구들, 법무법인동천 총5개 기관이 함께 하는 연대팀에서 경찰청 의견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로 이어졌던 사례는, 2021년 4월 해당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절차 매뉴얼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이 나왔다. 고무적인 결과이지만, 성매매-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내담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처분되었으며

이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 이밖에 생활이 불안정한 상담소 내담자들의 자녀지원도 많았다.

2021년 쉼터는, 백신 접종을 위한 절차 및 지원 중 많은 고충이 있었는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라도 공인인증서가 없는 내담자들은 대리 또는 보건소에 직접 전화로 예약해야 했고, 미등록내담자들은 보건소로 가서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에야 예약할 수가 있었다. 미등록내담자들의 경우 보건소 방문만으로도 불안감이 컸고 상담원 동행 후에야 안심하고 관리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백신 접종을 계기로 그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내담자들과 소통할 수 있었는데 쉼터 이용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지인 등 같은 지역 내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도 함께 진행됐다.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귀국 지원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각국의 현지 상황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항공사와 대사관마다 변수가 없는지 귀국 직전까지 거듭 확인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틈을 탄 각종 사기행각도 발견되었다. 가족들에게 매달 돈을 송금해야 했던 이주여성들을 타깃으로 터무니없는 액수의 이자를 붙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에 공유해 큰 피해를 입힌 사례이다.

3. 이주여성 프로그램

-상담소&쉼터



2021년, 상담소 프로그램은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일정 변경과 취소가 거듭됐다. 이주여성 내담자들이 거주하는 각 지역의 확진자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내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 삼았고 연초에 기획했던 체력강화 프로그램, 캠프, 두레방데이 등이 모두 취소되었다. 그 대신 명절,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 활동가들은 식료품과 선물꾸러미를 들고 가가호호 내담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지원했고,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였다. 경기북부에서 평택으로 이주해 기지촌 현장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는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강사로 참여해 성 건강 및 성매개감염질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내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하반기에는 경기북부이주민센터의 지원으로 상담소 내담자들을 위한 비대면 한글교실을 진행했는데, 코로나 상황에도 한국어 공부 의사를 계속 밝혀 온 내담자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

쉼터 역시 2021년 치료회복프로그램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내담자들의 피로감을 살피며 실내활동 위주 프로그램을 선별해 KFPA허브 아로마전문가과정을 진행하였다. 휴강과 재개를 반복하며 실습과 필기시험을 거쳐 최종 자격증을 취득한 내담자들은 정서적 위안과 자격증이라는 결과물이 주어지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꼈다. 이 밖에도 한글교실과 원예치료, 자수와 그림그리기, 뜨개 모자와 목도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각자 적성에 맞는 활동을 제공하는 온라인프로그램도 있었다. 확진자 추이를 살피며 외부 프로그램도 틈틈이 진행했는데 4월 꽃길 걷기, 10월 기차여행·바닷가 불꽃놀이·박물관 관람, 12월에는 ‘기지촌여성사’ 역사기행으로 동두천을 방문하였다. 크리스마스, 연말 등 절기 행사도 실내에서 소규모로 진행하였다. (두레방 프로그램 중 일부는 Columbus Foundation: MGF Touch Foundation Fund at Give2Asia의 지원으로 운영되었다.)

4.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 -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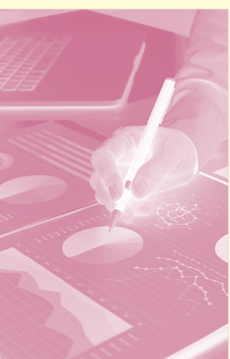
자활참여지원사업 연계는, 쉼터 내담자 및 이용자들에게 코로나 이전에도 좋은 기회였지만 코로나 이후 더 유익하였다. 성매매피해자활지원센터에서 연계를 받아 진행되는 인턴십과 자활은 일반적으로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시급이 책정되는 바, 코로나 이전의 경우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선호하기보다 공장, 식당 등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공장, 식당 등 취업의 문이 닫히면서 2020년에 비해 많은 수의 쉼터 내담자 및 이용자들이 인턴십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낮은 급여라도 꾸준한 수입이 절실했고, 비자가 없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개인사업체에서 보통 최저시급의 반 정도 해당하는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오히려 인턴십 프로그램이 나온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올해는 인턴십 프로그램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카페, 음식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 각종 기술을 습득한 뒤로는 바리스타, 면 뽑기, 판매용 김밥 만들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진행을 해볼 수 있었다. 장기적으로 본국에 돌아가서도 유용한 기술들을 습득하며 만족도가 높았고, 사업장을 제공해 준 대표들의 긍정적 피드백에 힘입어 이듬해인 2022년까지 연속 진행이 성사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적&통계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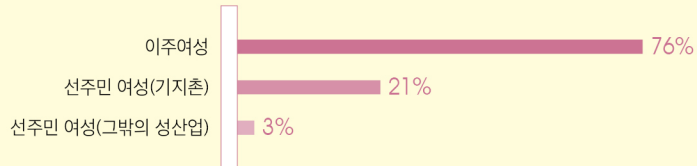
1. 두레방상담소 실적통계
2. 두레방쉼터 실적통계



1. 두레상담소 실적통계

❶ 2021 전체 내담자

100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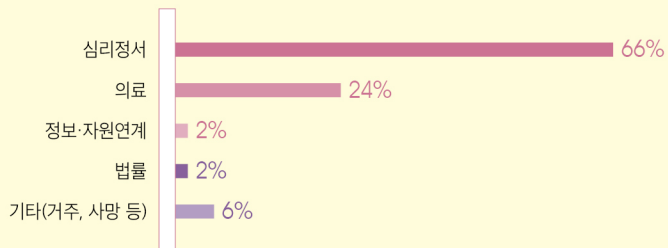
❷ 2021 전체 구조지원 사업

100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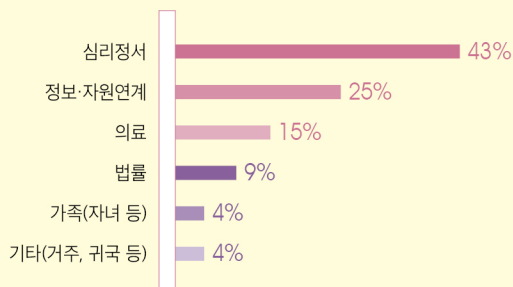
❸ 2021 선주민 여성 상담

100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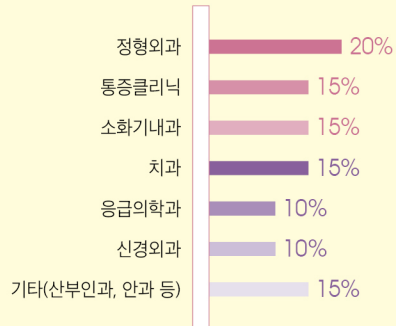
❹ 2021 이주여성 상담

100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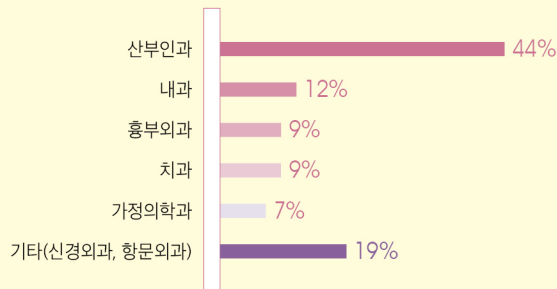
⑤ 2021 선주민 여성 의료지원

100 (%)
백분율



⑥ 2021 이주여성 의료지원

100 (%)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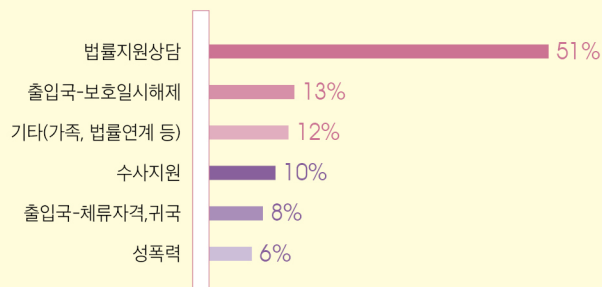
⑦ 2021 이주여성 내담자 비자 유형

100 (%)
백분율



⑧ 2021 이주여성 법률지원

100 (%)
백분율



2. 두레방쉼터 실적통계

❶ 2021 치료회복프로그램

100 (%)
백분율

사회적응

27%

문화체험

7%

상담치료

37%

심리정서

28%

건강관리·체력강화

1%

❷ 2021년 법률지원

100 (%)
백분율

긴급구조

1%

민사소송

33%

법률상담

1%

수사동행

13%

형사소송

13%

출입국 관련

39%

❸ 2021 직업훈련

100 (%)
백분율

미용기술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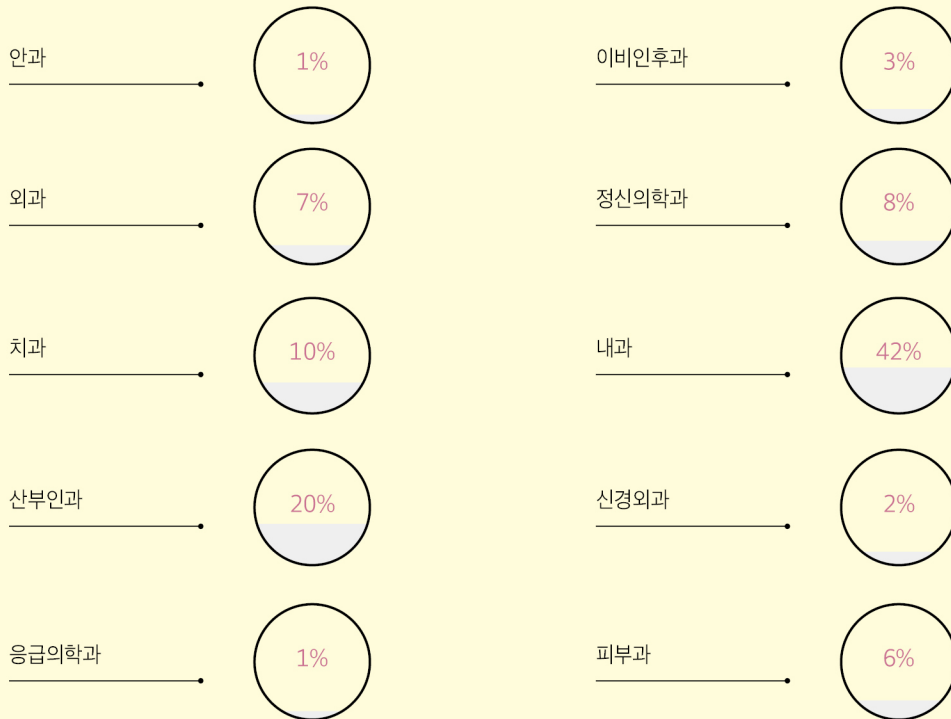
50%

네일기술학원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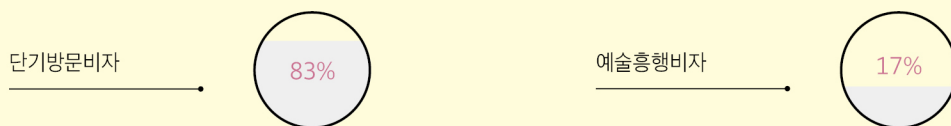
④ 2021 의료지원

100 (%)
백분율



⑤ 2021 귀국지원

100 (%)
백분율



주요활동 및 연대활동

IV

1.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개소
2. 주요활동 및 연대활동



1.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개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아래, 센터품)은 두레방이 평택시로부터 수탁한 성매매피해상담소로 2021년 12월 1일 개소하였다. [평택시 성매매피해자등자립·자활지원조례]에 따라 평택 성매매집결지 내 피해자들의 자립·자활을 돕고 의료, 법률,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기지촌여성과 이주여성 지원 경험이 많은 두레방이 평택 성매매집결지 내 피해자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걱정 섞인 조언 및 응원이 있었다. 두레방 또한 우려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성착취 구조에서는 인종,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그동안 두레방이 해왔던 활동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용기를 내 센터품을 개소하였다.

센터품의 이름은 ‘품앗이’에서 착안한 것으로,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평택 성매매 집결지와 그밖의 성 산업에 유입된 피해자들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센터품과 서로 품을 지고 함께하자는 뜻이기도 하다.

센터품은 성착취피해 현장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성매매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교류와 연대의 공간이며, 성착취 구조에 저항하고 성 산업 구조에 유입된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성착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담과 지원 및 성매매근절 활동을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과 반성매매 이슈 확산을 위해 연대하며 영상, 출판 등 기록화 작업도 함께 펼쳐나갈 것이다.

2. 주요활동 및 연대활동



아웃리치

아웃리치는 두레방 활동가들이 성 산업 현장 내 여성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상담으로 두레방 지원 내용을 알리는 활동이다. 현장에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홍보물품을 나누며 소통하는데, 두레방상담소는 주로 동두천 보산동 일대 기지촌 클럽거리와 경기북부지역 내 성매매집결지 현장에서 아웃리치 활동을 펼친다. 2021년도 한 해, 보산동 기지촌 클럽거리 7회(현장 조사 2회 포함), 성매매집결지 6회로 총 13회 진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보산동 클럽 입구에는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여졌고 대부분의 업소가 문을 닫은 가운데 일부 클럽에서 영업을 지속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한편 경기지역 내 성매매집결지 현장은 코로나 여파로 거리가 조용했다.



기지촌평화기행

2021년 10월 18일 여성인권센터보다(아래, 보다)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 10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기지촌 평화기행을 위해 두레방상담소에 모였다. 6월부터 가능성을 타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10월 성사된 것이다. 보다 활동가들은 자원활동가 대상으로 미아리 집결지 관련 교육 중 “동두천 몽키하우스 등 기지촌 역사를 공부하다 현장을 방문해 직접 보고 싶었다”고 두레방 방문 계기를 밝혔다. 당일, 두레방상담소를 시작으로 빼빼마을, 동두천 성병진료소(몽키하우스), 윤금이 씨 옛 집터, 상패동 공동묘지 순으로 기행하며 기지촌역사의 아픔에 공감한 참가자들은, 과거를 넘어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기지촌사에 대해 정확히 알고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레방 활동가 역량강화] 세어 _활동가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두레방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내담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성과재생산정의를위한 센터 세어(아래, 세어)와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1차 성 건강 정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에서 실시되었으며 두레방상담소가 10월 08일, 두레방쉼터는 11월 12일 각각 나눠서 진행되었다. 2차 에브리바디 플레저 팀의 프로그램에 따른 온라인교육은 11월 26일 쉼터와 상담소, 그리고 세어가 다 같이 모여 진행되었다. 의사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권리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두레방 활동가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맞춰 역할극을 시도해 보면서 내담자들의 입장을 좀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산부인과 지원 시 느꼈던 의료현장의 문제점과 대응법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인신매매특별법 전화 액션 제대로 제정하라

참여 방법

처벌 없는 인신매매 특별법 필요했다.
제대로 제정하라

- ① 인신매매특별법 대표발의 의원인 이수진 의원실에 전화, 이메일한다
- ② “피해자 보호 위한 인신매매 정의의 미흡, 가해자 처벌 위한 인신매매 정의의 미흡으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거나 처벌도 제대로 하고 피해자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스크립트 참조하여 인신매매특별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02-6788-6981
(서울 동작구) sujinleehope@gmail.com

인신매매특별법제정을위한연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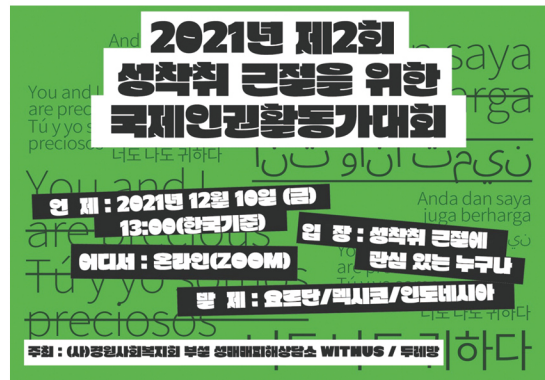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인신매매특별법 제정은, 2021년 처벌법 없이 보호법으로만 제정되는 방향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 두레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신매매특별법에는 보호법과 처벌법이 같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활동으로 <오마이뉴스> 기획연재 기사(총 6회)와 [인신매매특별법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두레방은 ‘E-6비자 소지 이주여성들의 피해 사례’를 토대로 연재 기사를 작성했으며, 토론회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또한 대표 발의한 의원실에 전화 및 이메일로 ‘인신매매특별법 제대로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2021년 4월 20일 우려대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시민사회단체들과 두레방은 안타까움을 뒤로한 채 2023년부터 시행될 보호법 모니터링을 하면서 처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 주요활동 및 연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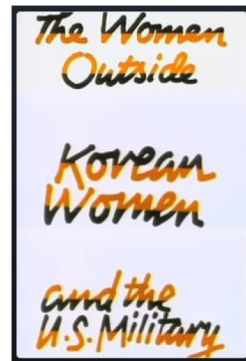
종전캠페인

한반도 평화 선언을 위한 종전캠페인은, 2020~2023년까지 전세계 1억 명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모아 연결하는 운동으로 평택 지역에서 두레방 쉼터와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이 함께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2021년 한 해 동안 한 달에 두 번 주말마다 지역 내 공원에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시국으로 비정기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면으로 서명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캠페인을 열도 서명 없이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매월 마지막 월요일 평택역 앞에서 종전캠페인의 취지와 슬로건이 적힌 판넬 등을 설치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제인권활동가대회

성매매피해상담소 위드어스와 두레방이 공동 주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국제인권활동가대회]가 2021년 12월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한국·요르단·인도네시아·멕시코 4개국이 참여해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성착취(여성인권) 실태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아동·청소년 인신매매를 통한 성착취와 성매매, 포르노그래피의 성행, 결혼인신매매, 사회적 구조와 종교 및 전통과 같은 문제들이 뿌리 깊이 박혀 결국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는 여성과 아이들의 현실과, 코로나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각국 사례 중심으로 활동가들이 직접 소개하고 나누며 소통·연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방의 여인들’과 ‘캠프 아리랑’: 아시아 여성 혐오와 전쟁> 화상세미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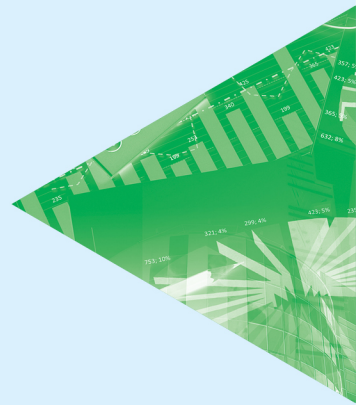
2021년 7월 30일 두레방은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노뚝돌>, 대안 영상 비영리단체인 <제3세계 뉴스릴>과 한국정책연구소가 주관한 다큐멘터리 상영회 및 화상세미나 [‘이방의 여인들’과 ‘캠프 아리랑’: 아시아여성 혐오와 전쟁]의 패널로 참여했다. 시인 에밀리 윤의 시 낭독 후, 사회자 배민주의 진행으로 아시아 여성에 대한 혐오, 폭력의 역사와 향후의 과제를 논의했다. <이방의 여인들>의 JT 타카기 감독은 이날, 90년대 기지촌여성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과 한국의 계속되는 미군 확장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아시아 아메리칸 페미니스트 공동체 활동가 살로니 바멘은 전 세계와 미국의 아시아 혐오와 폭력에 대한 해석과 미국 애틀랜타 총기 난사 사건을 통해 본 미국의 아시아아메리칸의 ‘안전’과 국가가 제공하는 ‘치안’에 대한 고민과 의문을 나눴다. 두레방 활동가는 기지촌 성산업의 국가 폭력,

90년대 중반 이후의 기지촌 변화, 팬데믹 영향, 향후 기지촌활동 과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 기지촌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 및 착취와 폭력은 미국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재도 아시아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맥락을 같이 하기에 두레방은 이 자리에 함께하였다.

결산&후원

V

1. 2021 두레방상담소
2. 2021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3. 2021 두레방쉼터
4. 후원자 명단(상담소&쉼터)



1. 2021 두레방상담소

세 입

과 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B)-(A)	세부내역
항	목			금액	
총 계		276,448,521	273,096,506	-3,352,015	
보조금	운영비	166,235,000	166,226,983	-8,017	잔액반납
	구조지원사업비	37,598,000	27,153,360	-10,444,640	잔액반납
도비지원금	인건비지원금	6,440,000	6,440,000	0	
후원금	지정후원금		4,075,900	4,075,900	이주여성 의료, 생계비
	비지정후원금	42,007,730	44,226,809	2,219,079	
프로젝트	Give2Asia	14,158,800	14,158,800	0	
	성매매피해자 인식개선사업	10,008,991	10,008,991	0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인권증진 주민인식개선사업 프로젝트
기타	잡수입		805,663	805,663	예금이자, 카드환급비, 장제비 등

세 출

과 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B)-(A)	세부내역
항	목			금액	
총 계		276,448,521	273,096,506	-3,352,015	
보조금	인건비	145,270,000	145,108,871	-161,129	사회보험비, 퇴직적립금 등
	운영비	14,060,000	14,598,792	538,792	
	사업비	6,905,000	6,519,320	-385,680	
	의료지원	34,298,000	26,846,710	-7,451,290	
	법률지원	3,000,000	6,650	-2,993,350	
	치료회복	300,000	300,000	0	성교육
도비지원금	인건비지원금	6,440,000	6,440,000	0	
후원금	인건비	34,707,730	32,585,702	-2,122,028	
	사업비	0	5,775,540	5,775,540	의료, 생계비지원
	운영비	7,300,000	10,247,130	2,947,130	
Give2Asia	프로그램비	12,750,000	12,565,221	-184,779	
	긴급지원비	800,000	746,459	-53,541	
	예비비	608,800	847,120	238,320	
프로젝트	성매매피해자 인식개선사업	10,008,991	10,008,991	0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인권증진 주민인식개선사업 프로젝트
기타	이월금	0	500,000	500,000	예금이자 5,781 포함

2. 2021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세 입

과 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B)-(A)	세부내역
항	목			금액	
총 계		20,500,000	20,171,761	-328,239	
보조금	시도보조금	20,200,000	20,171,230	-28,770	
후원금	지정후원금	0	0	0	
	비지정후원금	300,000	0	-300,000	
기타	잡수입	0	531	531	예금이자

세 출

과 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B)-(A)	세부내역
항	목			금액	
총 계		20,500,000	20,171,761	-328,239	
보조금	인건비	6,684,390	6,655,620	-28,770	종사자 인건비
	업무추진비	0	0	0	기관운영비, 회의비
	시설비	2,000,000	1,632,900	-367,100	자산취득비
	운영비	6,515,610	6,882,710	367,100	공공요금, 도서인쇄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사업비	5,000,000	5,000,000	0	현장(홍보)활동비
구조지원사업비	법률지원	0	0	0	
	의료지원	0	0	0	
	치료지원	0	0	0	
후원금	일반사업비	150,000	0	-150,000	긴급지원비
	관리운영비	150,000	0	-150,000	공동식사비, 사무비
기타	이월금	0	0	0	
	이자	0	531	531	예금 이자 반환

3. 2021 두레방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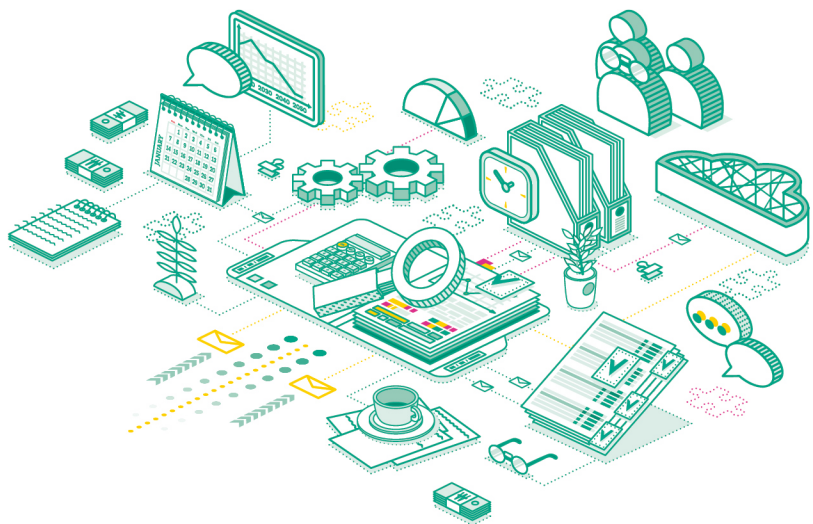
세 입

과 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B)-(A)	세부내역
항	목			금액	
총 계		267,320,054	270,092,705	2,772,651	
보조금	운영비	195,660,000	195,660,000	0	
	구조지원사업비	57,898,000	57,898,000	0	
	기능보강사업비	1,320,000	1,320,000	0	쇼파, 테이블세트, 캐비닛
도비지원금	인건비지원금	6,440,000	6,440,000	0	
후원금	지정후원금	3,000,000	1,450,000	-1,550,000	
	비지정후원금	3,000,000	7,324,220	4,324,220	
기타	잡수입	2,054	485	-1,569	예금이자

세 출

과 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B)-(A)	세부내역
항	목			금액	
총 계		272,033,000	274,805,651	2,772,651	
보조금	인건비	160,881,560	160,881,560	0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34,778,440	34,778,440	0	주부식비 등 운영비
	법률지원	21,000,000	19,916,203	-1,083,797	
	의료지원	15,000,000	17,715,220	2,715,220	
	직업자활지원	3,898,000	3,200,000	-698,000	
	치료회복지원	12,000,000	11,817,677	-182,323	
	귀국지원	6,000,000	5,248,900	-751,100	
	기능보강사업비	1,320,000	1,320,000	0	쇼파, 테이블세트, 캐비닛 구매
도비지원금	인건비지원금	6,440,000	5,550,660	-889,340	
후원금	일반사업비	2,965,000	1,566,130	-1,398,870	
	운영비	5,750,000	318,820	-5,431,180	공동식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소모품비, 연대활동비, 회계기장료

과 목		예산액(A)	결산액(B)	증감(B)-(A)	세부내역
항	목			금액	
후원금	시설이전비	2,000,000	0	-2,000,000	
기타	이월금		11,602,216	11,602,216	21년도 비지정 지정 이월금
	이자		485	485	비지정 지정 후원금 이자
	반환액		889,340	889,340	종사자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지원금 반환



4. 후원자 명단

두레방상담소

개인 회원				단체 회원	
강남대	목하경	이미자	조수정	강원새누리교회	서울성남교회
고유경	목하은	이슬샘	최미자	경기북부이주민센터	서울성남교회여신도회
김동금	문보희	이어라	최은희	경원사회복지회	속초성암교회
김미림	박정미	이유림	한유승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수동교회
김민주	박 철	이진아	한태우	국전약품	신웅천교회
김영주	배주영	이태욱	한혜영	군산연합회	양곡교회
김우진	변윤정	이한솔	홍석하	능곡교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김윤례	성민기	이혜영	황현주	대구영지교회	용광교회
김은재(양승진)	송은희	이희미		대전연합회	윤앤리특허법인
김은진	송정숙	이희은		동두천시	자유로운교회
김조이스	신웅천	장규례		동수원교회	전북동연합회
김진희	양지용	장미영		라이프오브칠드런	정의기억연대
김태정	오정혜	장지혜		매일유업	제주성내교회
김현숙	우현주	정강실		목포연동교회여신도회	충남남전교회
김형경	유근숙	정대훈		목포연동교회	평택센터
김 환	윤일희	정의길		새발교회	하름교회
덩아핑	윤자선	정의정		새발9여신도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맹수용	이경미	조성자		서울남노회여신도회	햇살사회복지회
목익수	이경숙	조수아		서울남연합회	향린교회

두레방쉼터

강경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전라도)	최초롱
강연홍	수간야	태국노무관
경기남노회사회부	수원구치소평택지소	평택장로교회
김은진	쑤팻다 디찌허	평택행복나눔
대추라평화마을	오성면사무소	푸드뱅크
로멜린	정나누리봉사단체	(주)한돌펌프
바다교회	정은 보아	○○시청
○○시청 복지정책과	(주)효진	

두레방 각 기관 후원정보

두레방상담소
농협 352-1485-8611-13
예금주: 김은진(두레방)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농협 301-0303-2519-81
예금주 :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두레방쉼터
농협 351-0070-4851-13
예금주 : 두레방쉼터

※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어렵습니다.
※ 두레방 활동에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NUAL REPORT

2021년 두레방 활동보고서

두레방 My Sister's Place

📍 11798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999번길 15
15, Songsan-ro 999beon-gil, Uijeongbu-si, Gyeonggi-do, Korea 11798

☎ 031. 841. 2609

☎ 031. 841. 2608

🎧 한국어상담 010-7741-2610 mysisterplace 📞
영어상담 010-6448-2608 durebang2608 📞
태국어상담 010-3071-9037

🌐 홈페이지 www.durebang.org

📘 페이스북 www.facebook.com/dulebang

